

농촌지역 아파트 입주자의 특성 및 거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to characteristics and residence consciousness of Apartment housing's resident in Rural

윤 충 열* 이 덕 용**
Yoon, Choongyeul Lee, Deogyong

Abstract

The influx of the apartment housing culture have passed thirty years, but it has been principally developed that in terms of the urban's residents. There is very important problem when we think about the improvement of housing's life of dwellers in rural. Therefore, as increased demand of apartment housing and dweller's needs in rural we think that there is worth studing to the residents of rural's apartment housin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housing in rural, to discriminate between rural's and urban's apartment housing plan and to adapt to basic data to satisfy request of rural apartment housing's residents according to the family compositio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1960년대 이후 공급되기 시작한 공동주택은 대도시 토지난 해소와 주택공급의 원활을 목적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아래 활발히 공급되어 왔다. 최근에는 대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내에도 도시지역의 그것과 차별화되지 않은 고층아파트들이 아무런 검증없이 건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농촌지역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거주의식은 무엇인지 알아봄으로

써 현재 보여지고 있는 문제점 파악과 더불어 금후 농촌지역내 아파트 계획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2 조사개요

농촌지역 아파트에 현재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와 설문지 조사를 병행하면서 입주자의 특성과 거주의식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시기는 1998년 8월중에 예비조사를, 9월에 1차 조사를 실시하고 2차 조사는 1998년 10월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지역적으로는 전라북도에 위치한 아파트로 한정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결정하였다.

* 정희원,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정희원, 정인대학 건축과 전임강사

첫째, 시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와 도시를 끼고 있는 郡(완주군, 익산군, 옥구군)지역 内の 아파트는 제외한다.

둘째, 지역전체인구에 대한 농업(축산업, 임업 등 포함)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40% 정도)를 나타내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준치 이하지역은 제외하였다.

셋째, 주변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군부대 인근지역 등 직업적인 면에서 농촌과 관련되지 않는 특수한 환경조건을 지닌 지역은 제외하였다.

넷째, 사원아파트나 임대아파트와 같이 특수한 계층을 위하여 건축되어 입주자 특성을 확일 화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 선정된 조사대상 중 전라북도 정읍군내 아파트 2개소와 임실군내 아파트 7개소, 도합 9개소 아파트를 선정하였는데 조사대상별 설문지 배포 및 회수율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 회수율

소재지	아파트명	배포(매)	회수(매)	회수율
정읍군	신세대	134	55	41.0%
	현대	70	22	31.4%
임실군	삼강	35	11	31.4%
	상아	65	15	23.1%
	아도	58	19	32.8%
임실군	상원	44	21	47.7%
	세원	57	15	26.3%
	효성	52	27	51.9%
	훼미리	100	56	56.0%
합계		615	241	39.2%

회수율을 보면 대체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농촌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파트가 주로 소규모단지(주로 1個棟)로 건축되고 경제적인 문제 등의 이유로 아파트내에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가 많아 입주자와의 접촉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입주자의 특성분석

2.1 세대주의 직업

조사대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주들의 직업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세대주의 직업 분포

직업 구분	응답자수	구성비(%)
회사원	42	21
공무원	35	18
자영업	43	22
운수업	25	13
농업	29	15
교사	8	4
건설업	6	3
의료업	4	2
서비스업	3	2
성직자	2	1
기타	2	1
합계	199	100

※ 지역별 전체인구에 대한 농가인구비율¹⁾

1. 정읍군 신태인읍 : 40.08%

2. 임실군 임실읍 : 39.97%

3. 임실군 오수면 : 47.20%

※ 총 241가구중 무직인 경우와 무응답인 경우는 제외하였다(이하 표 동일).

조사대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직업을 보면 사무직(회사원, 공무원)에 근무하는 경우가 39%, 자영업 22%, 운수업이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지역(읍면 전체지역)의 경우 전체인구에 대한 농가인구비율이 약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경우 부속사, 곡물이나 농기구 창고, 곡물을 말리거나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기에는 불편한 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예견

1) 전북통계연보, 1998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비율이 15%로 나타난 것은 비교적 높은 비율로 볼 수 있다.

그 원인으로서는 전체인구에 대한 농업종사자인구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은 이유도 있겠으나 과거와는 달리 부부중 한 쪽이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다른 한 쪽은 농업과는 전혀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같은 농작업장을 가진 친인척이 아파트 인근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 아파트 이용상의 불편한 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사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주생활에 편리한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그다지 장애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 그 원인으로 보여진다.

2.2 세대주의 연령계층

조사대상 아파트 세대주의 연령계층별 분포는 [표 3]과 같다.

표 3. 세대주의 연령계층

구 분	29 이하	30~39	40~49	50~59	60~69	70 이상	합계
경우수	24	89	51	23	9	3	199
구성비(%)	12.1	44.7	25.6	11.6	4.5	1.5	100

30대와 40대 연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파트는 장년층이나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나 중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별 평균연령을 보면 회사원이 37.0세, 공무원이 35.6세, 자영업 42.1세, 운수업 40.1세, 농업 46.5세, 교사 36.0세, 건설업 39.3세, 의료직 34.0세, 서비스업 32.3세, 성직자 49.5세로 나타나 평균치는 39.2세로 나타났다. 농업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사대상의 경우 농업 종사자 연령계층은 젊은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단독주택에 비해 이용이나 관리면에서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적다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보여진다.

2.3 가족형의 분류

가족형 분류방법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유형들을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분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작성하였다.

C : 부부

m : 12세 미만 男兒 f : 12세 미만 女兒

M : 12세 이상 20세 미만 남자

F : 12세 이상 20세 미만 여자

M⁻ : 20세 이상 남자 F⁻ : 20세 이상 여자

표 4. 세대수별 가족유형

		유 형	경우수
1 대	1인 세대	M ⁻ (11), F ⁻ (5), M(1)	17(7.3)
	2인 이상 세대	C(32), M F F ² (1), M ⁵ (1) F ⁻ M ⁻ (2), F ² M ² (1),	37(15.9)
	소 계		54(23.2)
2 대	결혼 없는 세대	CC(1), CM ⁻ (9), CM ² (1), CM F (3), CM F ² (1), CF ² (1), CM F f(1), CM F M(1), CM M ² (1), CM(3), CMF(11), CM ² (8), CM ² F(1), CMmf(1), CMf ² (1), CMFm(1), CF(2), CF ² (3), CFF(1), CFf ² (1), CFfm(2), CF ² f(1), CF ² m(3), Cm(20), CMf(2), Cm ² (12), Cm ³ (2), Cmf(19), Cmf ² (6), Cm ² f(4), Cf(16), Cf ² (7), Cf ³ (4), CFm ² (1), CMF ² (1), CMm(2)	154(66.1)
	결혼 (0.5)	F ⁻ M(1), F ⁻ M ⁻ (1), F ⁻ M ² (1), F ⁻ M F(1), F ⁻ F ² (2), F ⁻ F ² (1), F ⁻ F ² M(1), M F(1), M f(1), M M(1)	11(4.7)
	소 계		165(70.8)
3 대	결혼 없는 세대	CCM ² F(1)	1(0.4)
	결혼 (0.5)	M CMf(1), M CM ² (1), F Cm(2), F ⁻ CM(1), F ⁻ Cf(1), F ⁻ Cm ² (1), F ⁻ CMF(1)	8(3.4)
	결혼 (0.25)	F ⁻ M M(1), F ⁻ F F(1), F ⁻ F ⁻ m ² (1)	3(1.3)
	결혼 (1.5)	F ⁻ M F(1), F ⁻ F m f(1)	2(0.9)
	소 계		14(6.0)
합 계			233(100)

* () 안의 수치는 구성비(%)

범례 : 결혼치

0.5 : 부부중 한 쪽이 혼자인 경우

0.25 : 2대에 걸쳐 한 쪽씩 혼자인 경우

1.5 : 상위 1대에서는 한 쪽이 혼자이고

2대에서는 양쪽이 모두 不在한 경우

[표 4]의 가족유형을 보면 이제 농촌지역도 부부 단 둘만이 있는 2인 세대(C)가 단일 가족 유형으로는 가장 많은 경우수(32가구, 13.7%)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 되지 않은 부자간으로 구성되는 2대세대의 경우가 154가구 66.1%의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결혼가구수는 2대에서 11가구(4.7%), 3대에서 13가구(5.6%)로 함께 24가구(10.3%)로 나타나고 있다.

1대가不在한 결혼가구중 여자가 부재한 경우는 5가구 정도로 나타나고 대부분(72.2%)이 남자가 부재한 결혼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 없이 3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수는 1가구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농촌지역 가족유형도 도시지역과 같이 단순가족형 중심의 핵가족 유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농가·비농가 가족형 분포

구분	1대	2대	2대 결혼	3대	3대 결혼	계
농가	8 (27.6)	19 (65.5)	1 (3.5)	1 (3.5)	- (0.0)	29 (100)
비농가	46 (22.6)	135 (66.2)	10 (4.9)	- (0.0)	13 (6.4)	204 (100)
계	54 (23.2)	154 (66.1)	11 (4.7)	1 (0.4)	13 (5.6)	233 (100)

※ () 안의 수치는 구성비(%)

[표 5]는 가족유형을 농가와 비농가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인데 비농가에 비해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형에서 결혼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6. 자녀 성별 優位 가구수

優位性	f>m	F>M	m>f	M>F	f=m	F=M	합계
가구수	39	16	25	24	23	15	142
%	27.5	11.3	17.6	16.9	16.2	10.6	100

[표 6]은 자녀들의 남녀 성비율에 관한 것인데 12세 이상 20세 미만 연령층에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數的으로 우위를 나타내는 가족은 24가구(16.9%)이고 반대로 남자아이 數보다 여자아이 수가 많은 가족은 16가구(11.3%)로 나타났다. 반면에 12세 미만의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자녀가 12세 이상, 20세미만인 경우는 남자아이가, 12세 미만인 경우는 여자아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경우 여자아이의 수와 남자아이의 수가 같은 가족의 數는 15가구(10.6%)인 반면 12세 미만의 경우는 23가구(16.2%)로 나타났다.

3. 입주자의 주거의식

3.1 선호주택유형

주택의 선호도에 대한 의견을 직업별로 분류하면 [표 7]과 같다.

대체적으로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단독주택의 선호도는 출근시간을 자신의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집에서 있는 시간이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을 가진 입주자들(운수업 80.0%, 농업 85.2%, 건설업 100% 등)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7. 직업별 주택선호도

직업	단독주택	아파트	계
회사원	22 (52.4)	20 (47.6)	42 (100)
공무원	22 (66.7)	11 (33.3)	33 (100)
자영업	28 (66.7)	14 (33.3)	42 (100)
운수업	20 (80.0)	5 (20.0)	25 (100)
농업	23 (85.2)	4 (14.8)	27 (100)
교사	2 (40.0)	3 (60.0)	5 (100)
건설업	6 (100)	- (-)	6 (100)
의료업	- (-)	4 (100)	4 (100)
서비스	2 (66.7)	1 (33.3)	3 (100)
성직	1 (50.0)	1 (50.0)	2 (100)
기타	2 (100)	- (-)	2 (100)
계	128 (100)	63 (100)	191 (100)

※ () 안의 수치는 구성비(%)

입주자 연령에 따른 주택선호도는 [표 8]과 같다.

직업별로 조사한 선호도보다는 더 명확한 구분을 찾을 수 있는데 젊은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젊은층에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예상된 결과였으나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가 관리, 비용, 이용 등이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선호도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수치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파트 주거환경이 양호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연령계층별 주택선호도

	단독주택	아 파 트	계
29 이하	19 (61.3)	12 (38.7)	31 (100)
30~39	53 (58.9)	37 (41.1)	90 (100)
40~49	39 (76.5)	12 (23.5)	51 (100)
50~59	20 (74.1)	7 (25.9)	27 (100)
60~69	10 (71.4)	4 (28.6)	14 (100)
70 이상	3 (60.0)	2 (40.0)	5 (100)
	144 (66.1)	74 (33.9)	218 (100)

※ () 안의 수치는 구성비(%)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마당이나 정원 등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전원생활이 가장 높은 이유로 나타났고(53.9%) 환경조건이 아파트보다 좋아서(23.1%), 사생활 문제(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관리가 편하다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81.3%) 소수 의견으로 단독주택에 비해 경제적인 점, 직장생활이 용이하다는 점, 사생활 침해를 적게 받는다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3.2. 주생활 현황

조사대상 입주자들의 아파트 내에서 공간활용에 따른 주생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침실에서 침대사용여부, 거실에서의 응접세트 사용여부, 식당에서의 식탁 사용여부 및 그들이 선호하

는 사용방법에 이르기까지를 조사하여 보았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사용에 따른 느낌이나 앞으로의 사용여부에 관해 질문하였다.

이들 세 가구들은 주택내에서 주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의 가구이기도 하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중요한 시간에 즐겁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사용되는 가구들로 입식생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가구들이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그 활용방법에 따라 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안방에서 침대설치의 여부와 사용에 관한 의견을 표로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안방에서의 침대는 절반 이상이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이용에 따른 의견에서 더 높은 치수로 나타난 것으로도 침대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안방이라는 개념에서 취침만을 위한 침실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식침분리를 통한 위생적인 공간으로의 개선과 더불어 주부들의 가사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표 9. 침대 설치여부 및 사용에 관한 의견

구 분	경우수	구성비(%)
설치되어 있다	129	55.4
설치되어 있지 않다	104	44.6
계	233	100
편하다고 생각한다	118	58.1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85	41.9
계	203	100

침대를 사용할 경우 人體와 바닥과의 밀착면이 감소하기 때문에 온돌보다는 스텝을 이용하는 것이 난방효율이 높는데 외풍의 유입이 자유로웠던 재래 한옥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난방방식이었다. 그러나 건축자재의 발달과 시공기술의 발전으로 특히 아파트에서는 이상적인 난방방식으로 부각되고있다.

특히 침대는 입주자가 선택하여 사용하는 가구이고 高價이며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가구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을 경우는 쉽게 설치할 수 없는 가구이다.

또한 침대사용이 불편하다고 여기는 입주자들의 경우는 上記 내용과 상반되는 의견과 더불어 오랫동안 행해져온 주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거실에서 의 접섯트 사용에 관한 설문 응답은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표에서와 같이 접섯트의 사용이 침대사용에 비해 저조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지만 있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의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으로서는 이용상에는 편리하지만 기존의 접섯트가 대부분 高價이고 부피가 커서 공간활용에 따른 융통성이 적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 10. 접섯트 설치여부 및 사용에 관한 의견

구 분	경우수	구성비(%)
설치되어 있다	85	36.5
설치되어 있지 않다	148	63.5
계	233	100
있는 것이 좋다	140	70.4
없는 것이 좋다	59	29.6
계	199	100

표 11. 식탁 설치여부 및 사용에 관한 의견

구 분	경우수	구성비(%)
설치되어 있다	180	76.0
설치되어 있지 않다	57	24.0
계	237	100
편하다고 생각한다	162	73.3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59	26.7
계	221	100

[표 11]은 식당에서 식탁사용에 따른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은 입주시 건설회사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에 용이하고 싱크대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으로 보여진다.

특히 거실이 과거 남자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식당의 식탁은 기본적인 식사를 위한 테이블 역할뿐만 아니라 주부들이 음식을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하면서 손님이나 자녀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테이블 역할, 자녀들의 공부를 위한 책상, 음식준비를 위한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주부들이 상차리기에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다른 가구들에 비해 이용율이 높고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서민 아파트의 경우 거실중심의 평면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식당부분의 면적은 좁게 계획되는 경우가 많고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베란다나 보일러실, 창고, 다용도실 등을 통행하기 위한 통로면적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활용도를 증가시키기에는 식당면적이 비좁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3.3 필요침실수 산정

조사대상 아파트 1가구당 인원수는 조사대상 아파트의 경우 최대 5인이 가장 많은 39가구 (16.7%), 4인 가족은 80가구 34.2%, 3인 가족은 57가구 24.4%, 2인 가족이 41가구 17.5%, 1인 단독은 17가구 7.3%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가구당 평균인원수를 구하면 3.35인으로, 자신들이 거주할 주택의 침실수에 맞추어 주택을 선택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현재 제공된 아파트의 침실수는 입주자들의 최소한의 住生活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일반 서민용 아파트의 침실수가 3個室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협소함을 느낄 수도 있고 우리의 주택문화가 良質의 주생활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한 수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필요침실수는 前述한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성별 및 연령별로 그 필요도를 평가하여 산정하였는데 평가기준으로 사용된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연령대(사춘기)를 성인으로 생각하여 12세 이상을 성인으로 본다.

(2) 부부를 제외하고 12세 이상 이성(異性)성인은 같은 실을 사용할 수 없다.

(3) 동성일지라도 20세 이상 성인은 같은 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 20세 미만 성인(12세 이상)은 최대 2명까지만 같은 실을 사용한다.

따라서 가족형 분류기준으로 표현된 기호들을 기초로 필요침실수 세부기준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 C : 부부(1室)
- m : 12세 미만 男兒(성별 관계없이 2人 1室)
- f : 12세 미만 女兒(성별 관계없이 2人 1室)
- M : 12세 이상 20세 미만 남자
(이성 동일실 취침불가, 동성 2人 1室)
- F : 12세 이상 20세 미만 여자
(이성 동일실 취침불가, 동성 2人 1室)
- M⁻ : 20세 이상 남자
(이성 동일실 취침불가, 동성 1人 1室)
- F⁻ : 20세 이상 여자
(이성 동일실 취침불가, 동성 1人 1室)

가족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과 필요침실수 기준에 의거한 조사대상 아파트의 필요침실수는 [표 12]과 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 아파트 1가구당 인원수가 3.35인임을 감안할 때 적당한 평균치(2.1실)임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는 부부가 1실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부양하는 가족의 수가 2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필요침실수의 산정

필요침실수	1	2	3	4이상	합계	평균
농 가	8 (27.6)	10 (34.5)	11 (37.9)	- (0.0)	29 (100)	2.1실
비 농 가	41 (20.1)	102 (50.0)	53 (26.0)	8 (3.9)	204 (100)	2.1실
합 계	49 (21.0)	112 (48.1)	64 (27.5)	8 (3.4)	233 (100)	2.1실

※ () 안의 수치는 구성비(%)

필요침실수에서 농가의 경우는 3個室(37.9%)에서, 비농가의 경우는 2個室(50.0%)에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3.4 주거만족도

주거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한 시기를 먼저 알아보았는데 [표 1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93.2%로 나타나 거주자 대부분이 아파트 및 거주환경에 익숙하다고 보고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표 13. 현재의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

거주 기간	경우수	구성비(%)
1개월 미만	2	1.1
1년 미만	11	5.8
1년 이상 3년 미만	86	45.3
3년 이상	91	47.9
합 계	190	100

주거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정리하여 보면 [표 14]와 같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족의 정도는 불만족의 경우수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의 내용은 방음이 잘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소음문제나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과 공해 및 안전문제 등 대부분이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편함에서 야기된 것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다.

표 14. 현 거주 아파트의 만족도

주거만족도	경우수	구성비(%)
매우 만족	7	3.0
만족	47	19.9
보통	116	49.2
불만족	55	23.3
대단히 불만족	11	4.7
합 계	236	100

또한 만족의 경우는 아파트 자체에서 느끼는 감정보다는 주변 자연환경, 교통 등 주변 이용 시설이나 환경조건에 관련한 내용이 주로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고쳐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든 시기에 대한 응답은 [표 15]와 같다.

표 15. 개보수 희망시기

개보수 희망시기	경우수	구성비(%)
이사 후 바로	98	46.0
이사 후 삼년 이내	49	23.0
이사 후 오년 이내	14	6.6
개보수 희망하지 않음	52	24.4
합 계	213	100

이사 후 '바로'라고 응답한 입주자가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 건축 후 초기 입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비롯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보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입주자가 건축 후 초기에 이사를 왔거나 이사온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지역 주민들이 이사를 자주 다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6]은 개보수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하여 응답한 것이다.

개보수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부실시공과 이용상 불편을 가장 많이 응답하여 주었는데 대부분의 아파트가 관리실이나 경비실을 두지 않기 때문에 관리소홀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표 16. 개보수를 희망하는 이유

개보수 희망 이유	경우수	구성비(%)
납아서	5	3.3
좁기 때문에	24	15.8
부실시공으로	40	26.3
다른 집과 비교되어서	23	15.1
이용이 불편해서	46	30.3
싫증이 나서	9	5.9
식구수의 변동으로	5	3.3
합 계	152	100

좁기 때문에 개보수를 원하는 입주자의 경우는 본 문항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좁아서 불편하다는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4.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촌지역 아파트 입주자를 직업별로 구분할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입주자의 비율은 15%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자영업(22%), 회사원(21%), 공무원(18%) 등으로 나타나 비농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조사대상지역 아파트 입주자 가족유형은 혼자 사는 경우(17가구, 7.3%)나 단독세대(37가구, 15.9%)가 많은 반면 결손가족을 포함하더라도 3대가 같이 사는 가족은 14가구(6.0%)로 나타나고 있다.

(3) 1가구당 평균 가족인수는 3.35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교적 소규모적 가족구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침실수는 1가구당 평균 2.1실로 나타났다.

(4) 조사대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유형은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의 선호 경향이 2배 정도로 나타나 아파트 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아파트 환경이 악화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5) 주생활의 중심공간인 안방, 거실, 식당에서의 가구들에 대한 결과에서 응접셋트(36.5%)를 제외하고 침대(55.4%)와 식탁(75.9%)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구의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는 침대는 58.1%, 응접셋트가 70.4%, 식탁이 73.3%로 나타나 입식생활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9. 진정, “도시근교 농촌주택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3권 101호, 1997
10. 박경옥, “한국인의 주거조정 및 적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1986
11. 공영희, “중산층 소형아파트의 공간계획을 위한 생활형태적 접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12. 문희정 외 1명, “소형아파트 거주자들의 주민 전용 공공공간 요구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3권 106호, 1997
13. Karen A. Frank. 『New Households New housing』, van Nostrand Reinhold : NewYork, 1995
14. Amos Ropoport, The Meaning of the Built Environment, Sage Pub., London, 1982

참고문헌

1. 김재익 외 1명. “아파트 내외부공간 수요패턴의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85호, 1995
2. 조성희, “아파트 단위평면계획을 위한 거주자의 주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 74호, 1994
3. 김진균 외 1명, ” 아파트거주민의 사회계층적 성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0권 74호, 1994
4. 조성기 외 1명, “공동주택의 공적공간구성방식에 대한 거주자의 주의식 연구”,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0권 2호, 1990
5. 조성희, “주택유형에 따른 주공간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6. 홍두승 외 1명, “ 집합주거와 사회환경”,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1993
7. 박강철 외 1명, “거주자 상황성으로 본 지방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2권 96호, 1996
8. 박강철, “사회문화변동에 따른 주거규모의 추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